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닉 & 크리스탈 피롤로 선교사님

피롤로 선교사님 가정이 5월 16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선교보고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롤로 선교사님 가정은 저희 교회에서 Youth Group Ministry 를 하시다가 르완다로 선교를 가신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더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교사님과 youth 시절을 보낸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저희 교회를 섬기시며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올바른 성경지식의 부재로 온 나라가 오히려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그곳이 르완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풍이 되지 않도록 르완다 현지 목회자를 위한 신학대학선교를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닉 선교사님은 신학교 (Pastoral Training School)에서, 크리스탈은 산부인과 간호사로 현지인들을 10년 가까이 섬겨왔습니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코비드로 도시들의 락다운을 명령했고, 닉 선교사님과 동역해온 조셉이 코비드에 확진되는 등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섬기던 신학 대학교도 코비드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신학대학의 정부 승인을 위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밀당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승인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있는 현지인 채용과 학교의 재정적 직원채용능력입니다.

작년 초 코비드 판데믹으로 르완다보다 미국에서의 상황이 더 나빠서 간호사 인력이 필요했던 즈음에 온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최근에는 미국 곳곳의 교회들과 후원단체들을 돌면서 르완다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더많은 기도 후원자들과 재정후원자들을 만나기 위해 5/13부터 5/25까지 덴버와 와이오밍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십니다. 우리교회에서는 EM 예배 설교와 2부예배후 간단한 선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과장&주열매 선교사님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장과장, 주열매 그리고 2살 아들 언약이 가족의 소식입니다. 나라 인구의 99.8%가 이슬람교인 터키는 공격적이고 강한 민족주의적 국가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법적 행정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전형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름도 가명을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4만-6만명의 코비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며, 지난 4월 29일부터는 밤과 주말에 전면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터키 역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긴시간 지속된 코비드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일당으로 살아온 난민들과 유학생들입니다. 일자리를 잃은채 본국 친척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하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도 한달에 두번 정도 기초 식재료와 생필품을 전달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심방과 온라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H 가정을 통해 새로운 R 가정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실히 리더 교육을 받아오던 H 가정이 헌신하며 이웃을 섬겨오던 중에 어려움에 처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이 H 가정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비용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R 가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H 가정을 지키시고 이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두 선교사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박우석 선교사님



작년 한해 13,312명 확진자, 3,014 사망자를 발표했지만, 방역조치나 의료대책이 부재한 상황인 니카라과 정부의 발표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작년에 선교센터 내에 사택 건축이 완공되었고, 어린이 청소년 캠프, 가정부부학교와 결혼예식, 에벤에셀 교회구제사역, 코로나 구제사역, 신학교 강의, 공립학교 말씀사역들이 이어졌고, 예배 또한 계속적으로 현장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사모님의 어머니가 소천한 슬픈 소식도 있지만, 장남 가정에 딸 사촌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스크도 거의 하지 않고 방역 지침이라고는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도, 선교사님의 사역은 씬없이 진행되었음을 선교사님의 보고를 통해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 가득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역들로는, 신학교강의 (가정상담, 목회상담학, 성경통독), 공립학교 말씀선포 사역, 문맹퇴치사역, 레온국립대학강의(한국어) 등이 있고, 사모님의 약처방과 치과치료 차 한국/캐나다 방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들의 영과 육 간의 건강함과 한국과 캐나다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학교와 국립대학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복음의 전파 기회가 되도록, 세워진 16개 교회들과 현지 목사님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공통기도: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코비드와 종교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샬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이 속히 해결되길
스리랑카	정은범	6개월 비자 연장에 감사, 어머니의 건강
아리조나	모니카 리	지속적으로 교회건물을 훼손하는 아이들 문제, 교회의 안전 및 보수작업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T국	장과장 & 주열매	코비드로 실직한 난민들과 유학생들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리더쉽 프로젝트 사역들,